

A. 주제(Thesis)

-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성장이 아닌 원천/기원에 초점을 둔다.
-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로마를 포함한 주변의 총체적 문화 유산 안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B. 문제점(Problems)

- 그리스도교를 구원의 역사라는 전통적 이해 속에서 보는 방법을 “오직 이스라엘”(Israel-alon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로마 배경을 유대 배경과 함께 (혹은 같은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
 - 예수나 초대 그리스도교의 좋은 사상을 구약이나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교에서 찾으려는 시도.
 - 이들 중 어느 것이라도 비유대적 민족이나 외부 사상가들에게 돌리지 않으려는 속 좁은 마음.
 - 당근 “이집트 배경”이나 “메소포타미아 배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 당시 새롭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눈길을 피하려는 노력. 새로운 일이란 “정치적 혁명, 곧 나라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뜻했기 때문(20). 고로 ‘새로움’을 전통이라는 틀 속에 숨긴다.
- 비록 정체성 문제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유대교 전통에서 찾지만, 실제 그리스도교는 지엽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한다.

C. 논점(Argumentation): 세 가지 해석의 모델

1. 계보(genealogy) 모델

- 계보라는 말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로 여기기 때문.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으로 유대교 배경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로마 환경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 이방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그리스-로마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이스라엘 모델의 한계)
 - 교회의 주요 종교 예식(세례와 성만찬)이 이방인의 밀의 종교 풍습을 모방했다는 비판자의 말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악마가 미리 알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방 종교에 퍼뜨렸다고 맞받아쳤다(Justin Martyr)
 - 계보 모델로 볼 때,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의 어머니라면, 그리스-로마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아버지에 해당한다(27).
- 계보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부모들에게는 보통 하나 이상의 자녀가 있다는 점이며, 자녀들은 각각 다르게 성장한다는 사실. 처음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존재했다.
 - 바울 공동체, 베드로/야고보 공동체, 영지주의(28); “유대적 그리스도교인,” “영지주의적 그리스도교인 및 자칭 정통주의자들”(32).
 - 4 복음서 이해=> 오늘날 많은 교단의 그리스도교 모습과 흡사.

2. 큰 강물 모델

- 큰 강물과 지류(支流)와의 관계.
 - 큰 강물에 섞인 지속적인 요소 (예. 오하이오 계곡에서부터 흘러온 석탄가루).
 - 어떤 것은 하나의 물줄기에만 따라 흐른다 (예. 스티로폼 컵, 어린아이 인형).
- 큰 강물로 본 그리스도교 이해
 - 강이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고대 근동에서 신과 인간 관계의 지속된 시간 속을 흐르는 물줄기, “하느님의 강”이다.
 - 신과 인간 모두 이 강물 줄기에 기여한다. 신의 영감(靈感), 예언자, 교사, 현자들의 사상과 교리.

-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주요 지류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문화 외 다수. "하느님의 강은 이들 없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31)

- 특징과 장점

- 서로 다른 문화와 개념이 섞여 하나의 사상 체계를 이룬다. 독불장군(오직-이스라엘 모델)은 없다!
- 일단 강물에 들어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결국 삼각주에 도착한다. 옛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에서 생겨난 개념이 유대교 주요 사상에는 없거나 강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교에 이르러서는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예. 악마, 죽음의 신.
- 부모에게 많은 형제가 있듯, 하느님의 강은 삼각주의 여러 강줄기—여러 그리스도교를 생성.
- 하느님의 강이 그리스도교/종교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위기와 영감을 통해 만들어 낸 작품이다"(33).

3. 단속적 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

- 초기 진화론(Darwin)에 따르면, "진화란 점진적이고 비교적 일정한 과정으로 종(種)의 진화를 위해 외부의 압력이 거의 필요 없었다"(34). 이는 "오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 최근에는 어떤 종(種)을 홀로 내버려 두면, 전혀 진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는다. 종(種)이 환경 속에서 압력을 받을 때에만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한다. 평형상태의 중단, 그래서 단속적 평형설이다.
- 이스라엘 종교와 관련, 만일 새로운 위기—주위 민족들로부터의 압력—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종교는 본래 가나안 형태로 남았을 것이며, 그리스도교 또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D. 평가(Critique)

- 하느님의 강—그리스도교를 강물에 비유, 이를 이루는 지류(각종 문화)의 공헌을 살펴본 것은 탁월한 감각이요 선택. 특별히 이것을 "하느님의 강"이라 이름하여, 인간(독자)들이 강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거대한 문화유산에 동참(초대)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종교사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또 종교 간의 대화에도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새로운 모델들은 "종교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 이전의 긴 흐름 속에 포함된 문화들에 대한 실제 역사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37).
- 오직-이스라엘 모델의 입장에서 본 구원사관(救援史觀)은 후대의 종교가 앞선 종교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선조를 모욕하는 경향이 있다(37). 저자가 제시하는 계보 모델은 앞선 종교적 전통 (혹은 다른 종교적 전통)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은 줄기가 커지고 길어지면서 오염의 위험이 있고, 진화란 반드시 질적향상을 뜻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존" 보장의 문제다(38).

생각해 보기

1. 한국 교회에서 "오직-이스라엘" 모델에 비유될 만한 신학/신앙의 입장은?
2.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다시하기와 그레고리 라일리가 주창하는 세 가지 모델 (계보, 큰 강물, 단속적 평형설)과의 연관성은?
3. 내가 선호하는 모델은? 왜?